

설날 아침에

정재현



내일 모레면 설이다. 하지만, 올 설은 도무지 흥이 나지 않는다. 이번 설 연휴는 유독 춥다고 한다. 몸보다 마음이 춥다. 들려오는 얘기는 구조조정, 퇴출, 경찰 특공대, 화염병 등 온통 살벌하거나 짝박이다. 일자리를 잃어, 취직을 못 해 귀성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덕담보다는 '어떻게든 살아 남아야 한다'라는 당부의 말이 오가고 있다. 밀도 끝도 없는 절망감과 불안감이 밀려온다. 참으로 이번 설처럼 '낯설고 스산한 설'도 없었던 듯 싶다.

낯설고 심란한 설

국가 살림살이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9월 발생한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쓰나미가 되어 우리 실물경제를 덮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동기보다 -3.4%로 곤두박질했다. 분기별 마이너스 성장은 환란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성장률은 더 비관적이다. 세계 경제의 예상을 뛰어넘는 급속한 추락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감소로 일감이 줄어들 문을 닫는 기업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전국의 부도업체는 전달보다 48개가 늘어난 345개에 달했다. 3년9개월 만에 최고치다.

그래도 고향과 가족이 있기에...

위기는 일자리 부문으로 옮겨가고 있다. 내달 대학 졸업자가 쏟아지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형·중·장년 가릴 것 없이 실업자가 대량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올해 우리 성장률이 1%일 경우 실업자가 178만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올 설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자가 200만명이 넘을 경우 우리 사회는 해체과정을 밟을 수도 있다고 한다. 섣박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일 발생한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사건은 올 봄 이후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얇게 될 질병의 예후(豫後)를 보여준다'는 어느 신문 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일의 희망을 말하기에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매듭을 풀어야 할지 막막하다. 그래도 우리는 얇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하지만, 정부나 정치 지도자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면 미담지가 없다. 11년 전 외환위기 때는 국민들 사이에 공

구역구역 고향을 찾는다. 서로 체운을 느끼며 손을 잡아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걸 감싸안고 다독이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안이 그리워사다.

가족이 희망이고 힘이다

고향과 가족,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보이지 않은 힘이 있다. 사람의 생각을 이끄는 힘도 있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도 있다. 또 마음을 정화하는 힘도 있다. 그래서 힘겹고,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찾는 게 어머니와 고향이다.

우리 모두 이번 설엔 자식들에게 설빔을 못해줘, 맛있는 음식을 먹이지 못해 한쪽 구석에서 차마 쪽으로 눈물을 흘려내던 어머니의 정과 어려웠던 과거를 확인해봤으면 한다. 지금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때, 그 시절보다야 낫지 않은가. 희망을 버리지 말자는 얘기가.

고향과 어머니가 품어준 따뜻한은 우리로 하여금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바람으로 다시 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가족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는 버팀목이다. 그래서 온 가족이 고향집에 모여 희망의 싹을 틔우는 올 설이 더욱 설레고 기다려진다. 설이 지나면 머지않아 봄이 우리를 맞을 것이다. <논설위원>

시설

돈은 안 주면서 재정 조기집행하라니

정부는 급속히 추락하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재정의 60%를 올 상반기 내에 집행하라라고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등 각 지자체는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정작 집행할 돈이 없다는 것이다. 중앙 정부가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외치는 '경기부양'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올 상반기 예산으로 1조7천82억원과 3조800억원씩 각각 책정했다. 이 가운데 광주는 50%, 전남은 80%가 국고 보조금이다. 예산이 없이는 재정 조기집행은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지원 예산은 광주시 1천279억원, 전남도 3천869억원에 그쳤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지방예산의 32.5%인 63조5천억원을 지자체에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지방에 내려보냈다는 돈이 하늘로 솟았던 말인가, 땅으로 꺼졌단

말인가.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절차도 문제다. 재정 집행 효과가 큰 대규모 공사의 경우 손실보상 기간이 대폭 단축돼야 하는데 현행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하다. 또한 정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은 시행시기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돈도 없고, 제도도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로서는 두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러니 정부가 신뢰를 잃고 있지 않은가.

우리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지방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경제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경제위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다간 어떤 일이 발생하지 모른다. 경제회생은 말로써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요한다. 경제회생은 말로써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공명불'에 불과하다. 지금은 말보다 행동이 필요할 때다.

정치권, 설민심 잡기 앞서 민심부터 살피라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이들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전 세계를 강타한 최악의 불황으로 기업이나 가게 등 우리 경제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다. 2007년 2만 달러를 돌파했던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에는 1만 달러대로 떨어졌다. 환율이 폭등하면서 소득의 절반이 날아가 버린 것이다. 살림살이가 파탄해진 서민들은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다.

경제뿐만 아니다. 정치, 사회 어느 분야 가릴 것 없이 대립과 갈등, 분열과 분쟁의 괴렁괴렁만 들려 올 뿐이다. 이 와중에 철거현장에서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이 숨진 '용산참사'는 서민들을 걸거리로 내몰고 있다. 성난 민심들은 연일 서울 명동 성당과 광주 도시에 모여 경찰의 강경진압을 성토했다. 설 명절을 포기했다. 귀성길에 올라야 할 이들이 추위와 싸우며 MB 정부의 공안정치를 규탄하고 있는 것이다.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정치권이 부러부러 설 민심 잡기에 나섰다. 한 나라답은 사고 수습과 대안 마련에 주력하는 모습을 부각시키며 싸늘해진 민심 되돌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에 이어 '특검 도입'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

하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설 민심은 싸늘하지만 아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야 막론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을 다짐했지만 달라진 게 없어서다. 국민은 살얼음판만 들려 올 뿐이다. 고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설 민심은 싸늘하지만 아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야 막론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을 다짐했지만 달라진 게 없어서다. 국민은 살얼음판만 들려 올 뿐이다. 고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설 민심은 싸늘하지만 아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야 막론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을 다짐했지만 달라진 게 없어서다. 국민은 살얼음판만 들려 올 뿐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강박원.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고향을 찾는 이들의 귀성행렬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설날은 기대와 설렘보다는 좌절감과 걱정으로 그 어느 해 보다 차분하고 조용한 연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경제가 흔들리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매우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급난을 이기지 못해 쓰러지거나 도산 직전에 몰린 기업들이 늘어나고, 청

기고 김치동. 신문은 보니 시장은 명절 대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쌀쌀한 분위기로 한다. 명절을 맞는 서민들의 마음에도 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설렘과 기다림으로 시작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될 것이다. 사람들은 왜 설날이 되면 그 어려운 고향들을 떠나고 고향을 찾아가는 걸까. 고향에 무엇이 있기에 사람들을 그곳으로 모이게 하는 것일까. 설날이 오면 사람들은 전통한복을 입고, 전통음식을 장만해서 차례를 지내고 부모님에게 세배인사를 드린다.

無等鼓. "나는 다시 한번 조국의 부름을 받아 대통령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기회가 오면 나는 이 특별한 영예에 대해, 그리고 미국 국민이 내게 걸었던 신뢰에 대해 내가 품고 있는 고귀한 소감을 피력해볼까 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재임 취임 연설문은 고작 135단어에 불과했다. 연설에 걸린 시간 역시 2분이 채 못 됐다. 반면 취임식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한' 대통령은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었다. 1841년 3월4일 제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8천445단어 분량에 이르는 장문의 연설을 했다. 비가 내린 추운 날씨가 2시간 넘게 연설한 탓일 게다. 취임 한달 만에 폐렴으로 숨지는 불운의 대통령이 됐다. 1961년 1월 3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존 F. 케네디의 연설 역시 '명품 스피치'로 회자되고 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어십시오"로 유명한 그의 연설은 당시

최근 경찰이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 농성장을 단호하고 초강경으로 진압해 6명이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원성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 아무리 철거민들이 농성을 심하게 하고 비폭력을 위반했다 해도 다른 일이 아니고 생존권 차원에서 벌인 농성객들에게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진압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마치 적을 대하듯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장기간에 걸쳐 벌인 농성도 아니고 불과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무조건 도주를 시도하기도 한다. 동생이 도로교통을 담당하는 경찰관인데 음주단속 중 어떻게 도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겁이 난다. 경찰을 치고 도주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현재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 중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할 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순순히 응하는 사람들은 음주 여부에 따라 엄격히 처벌을 받고 있으나

대대한 리더십. "나는 다시 한번 조국의 부름을 받아 대통령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기회가 오면 나는 이 특별한 영예에 대해, 그리고 미국 국민이 내게 걸었던 신뢰에 대해 내가 품고 있는 고귀한 소감을 피력해볼까 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재임 취임 연설문은 고작 135단어에 불과했다. 연설에 걸린 시간 역시 2분이 채 못 됐다. 반면 취임식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한' 대통령은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었다. 1841년 3월4일 제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8천445단어 분량에 이르는 장문의 연설을 했다. 비가 내린 추운 날씨가 2시간 넘게 연설한 탓일 게다. 취임 한달 만에 폐렴으로 숨지는 불운의 대통령이 됐다. 1961년 1월 3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존 F. 케네디의 연설 역시 '명품 스피치'로 회자되고 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어십시오"로 유명한 그의 연설은 당시

▲우항화·광주시 북구 우산동 ▲이준호·광주시 북구 우정동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